

보도자료

제목	제30회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2025) 백남준아트센터 특별 세션 《백남준-라이브 SF 영화》		
문의	백남준아트센터 : 이수영 (t. 031-201-8596 m.010-4288-2713) 김지수 (t. 031-201-8542. m.010-6750-0450) 아트센터 나비 : 황유정 (m.010-3231-0996)		
배 포	첨부된 다운로드 링크 확인	쪽수	총 5매

제30회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2025) (학술 프로그램) 특별 세션 《백남준-라이브 SF 영화》 개최



백남준, <세계와 손잡고>, 1988

- ▶ 백남준아트센터는 제30회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2025) 특별세션 학술프로그램 《백남준-라이브 SF 영화》 기획, 운영
- ▶ 백남준의 사유를 통해 미디어아트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 기술과 인간의 관계, 시공간의 우주적 확장, 매체가 지닌 상상력의 가능성을 동시대의 맥락 속에서 다시 조명
- ▶ 백남준의 '라이브 SF 영화'라는 명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예술이 만나 미래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 사변적 예술 실천의 장을 제안

■ 심포지엄 개요

- 행 사 명 : 제30회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2025) 특별 세션
《백남준-라이브 SF 영화》
- 일 시 : 2025.5.28.(수) 10:00-17:25
- 장 소 : 서울대학교 렉처 홀
- 초청발표자 : 심상용(서울대학교), 신원정(계명대학교), 마르티나(자그레브 현대 미술관, 크로아티아), 올가 마이센 린(독립 큐레이터, 크로아티아)
- 주최/주관 : ISEA인터내셔널, 아트센터 나비,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 예술의전당
- 협 력 : 백남준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WeSA, ELEKTRA 등
- 참 가 : 유료(사전등록 33,000원), 현장 등록 가능
<https://event-us.kr/isea2025/event/98508>
- 문 의 : 031-201-8596

■ 심포지엄 소개

백남준아트센터는 5월 28일(수)에 제30회를 맞는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이하 ISEA2025)의 특별 세션으로 《백남준-라이브 SF 영화》를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ISEA2025의 주제인 ‘동동(Dong-Dong): Creators’ Universe’과 연결하여 백남준의 우주적 상상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해당 행사는 ISEA2025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983년, 백남준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 초안」에서 파리와 뉴욕 간 위성 피드백 루프를 두고 “전자적으로 파리와 뉴욕의 거리를 1/2인치로 압축한 것”이라 표현하며, 이를 ‘라이브 SF 영화’라 명명했다. 백남준은 1984년 위성 생방송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통해 전자적 상호작용이 물리적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공간 개념 자체를 전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ISEA2025 특별 세션 《백남준-라이브 SF 영화》는 이러한 백남준의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우주와 지구 사이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공상과학적 시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이 세션은 백남준의 작품과 사유를 매개로 기술과 인간, 감성과 기계, 현실과 가상, 그리고 인류와 우주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탐색하며, 미디어아트가 단순한 기술 응용을 넘어선 예술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유의 장임을 다시금 환기한다. ‘라이브 SF 영화’라는 명명은 시대의 과학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방식, 그리고 그 만남이 만들어내는 미래 담론의 가능성을 상징하며, 이번 심포지엄은 그 상상력을 동시대 예술과 기술로 확장

하는 열린 장이 될 것이다.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발표자들은 각각의 관점으로 백남준의 우주적 상상력에 대해 논의한다. 심포지엄은 ISEA2025의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다섯 명/팀의 발표자들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초청한 세 명/팀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초청한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심상용(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은 “저는 안 좋습니다. 백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백남준의 인공위성 생방송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동시대에 팽배한 글로벌리즘과 가속주의 기술 문화 등을 재고한다. **신원정(계명대학교)**은 “백남준의 예술 전략에 나타난 현실 변형과 미디어 저항”이라 주제 아래, 백남준의 미술 실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백남준의 예술적 전략인 이미지 왜곡을 통해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의문 제기, 지배적 미디어 담론에 대한 저항, 권력 구조의 해체 및 기술 매개 경험의 파편화를 반영하는 비판적 전략 등에 대한 깊은 분석을 시도하며, 동시대 미술에서 여전히 유효한 백남준의 미술 실천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현대 미술관에서 백남준아트센터와 《백남준의 그루브》를 공동기획했던 **마르티나 무니브라나, 올라 마이센 린, 단 오키**가 참여하여 “연결하기: 백남준의 미디어 커넥션의 시적인 흐름”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백남준의 예술적 비전을 연결성과 시적 흐름으로 분석하고 큐레이터리얼 실천의 관점에서 백남준의 미디어 전략을 재조명하여 예술과 기술, 인간을 잇는 창조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박남희(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이 모든 발표자들과 함께 백남준의 우주적 상상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은 예술, 과학, 기술이 만나는 다학제적 교류의 장으로, 논문 발표, 워크숍, 키노트 등 다양한 학술 행사와 연계 프로그램이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이다. 올해 제30회를 맞이하여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예술의전당 등에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과 전시가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ISEA2025 홈페이지를 참고. <https://isea2025.isea-international.org/>

■ 프로그램

2025년 5월 28일(수) 10:00-17:25, 서울대 미술관 렉처 홀

시간	세션	구분	참여자
10:00~10:15	개회	개회 및 백남준비디오 상영	박남희(백남준아트센터 관장)
10:15~11:20	ISEA 발표	디지털 및 혼합형 전시 연구를 위한 창조적 자원으로서의 백남준의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1961)	에리카 마르틴스, 리비아 놀라스코-로자스, 파트릭 켈레, 한누리
		촛불들	유르겐 오스타힐트

11:20~14:20	점심		
14:20~15:40	초청 발표	저는 안 좋습니다. 백 선생님	심상용(서울대학교)
		백남준의 예술적 전략에 나타난 현실 변형과 미디어 저항	신원정(계명대학교)
		연결하기: 백남준의 미디어 커넥션의 시적인 흐름	마르티나, 올가 마이센 린, 단 오키
15:55~16:10	휴식		
16:10~17:25	ISEA 발표	<필름을 위한 선>과 <TV 부처>: 미디어를 통해 표현된 한국적 산수화	이현진
		포스트휴먼 섹슈얼리티의 수행으로서의 백남준	우정아
		Paik Replayed: 하이브리드 전시가 바꾼 비디지털 예술	리비아 놀라스코-로자스, 에리카 마르틴스, 파트릭 켈레
17:20~17:25	토론	라운드 테이블 모더레이터: 박남희(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초청 발표 소개

심상용(서울대 미술관 관장)

“저는 안 좋습니다. 백 선생님”

백남준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 대표되는 인공위성 생방송을 세 번이나 제작한 바 있다. 전 세계를 연결하여 평화적 소통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백남준의 위성 생방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오늘날 팽배한 글로벌리즘과 가속주의 기술 문화 등을 재고한다.

신원정(계명대학교)

“백남준의 예술 전략에 나타난 현실 변형과 미디어 저항”

이미지 왜곡을 통해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의문 제기, 지배적 미디어 담론에 대한 저항, 권력 구조의 해체 및 기술 매개 경험의 파편화를 반영하는 비판적 전략을 펼친 백남준의 미술 실천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동시대 미술에서도 유비를 찾을 수 있다.

마르티나 무니브라나(자그레브 현대 미술관), 올가 마이센 린, 단 오키

“연결하기: 백남준의 미디어 커넥션의 시적인 흐름”

백남준은 예술적 비전을 통해 오늘날 미디어 실천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연결성과 시적 흐름은 동시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상상력의 원천이다. 큐레이터리얼 실천의 관점에서 백남준의 미디어 전략을 재조명하며, 예술과 기술, 인간을 잇는 창조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붙임 : ISEA2025 공식 포스터

